

한우 자조금



특집

한우정책 구심체 역할 수행 '한우사업단'
송아지생산안정제 · 품질장려금 개편...현장과 괴리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기아타이거즈, LG트윈스 우승기원 '한우데이 개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초기 대비 큰 개선

08

2009 • August



한우정책 구심체 역할 수행 '한우사업단'

1차 선정 합격율 98%육박 '열기고조'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인증위원회'를 열고, 기초 135개소, 광역 3개소의 사업단을 인증했다. 기초사업단 인증을 신청한 곳은 총 138개, 이 가운데 3개가 탈락했다.

인증위원회는 기초 한우사업단의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인증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70점 이상을 획득한 135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단양군과 진도군, 철원군은 아쉽게 탈락했다. 또 광역 한우사업단으로 인증을 신청한 4개 사업단 가운데 참품 한우 광역사업단(경북)은 유보됐다.

이번 한우사업단에 참여한 농가는 7만7천호, 두수는 166만두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우사업단을 중심으로 한우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한우암소개량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우사업단의 합격률은 98%에 육박한다. 사업단에 대한 현장의 참여의지가 높았고, 정부도 이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40개 인 연내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제정 문제로 군과 축협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횡성 이 사업단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며, 충실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업단을 출범 하겠다는 지역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에 선정된 광역사업단은 3개에 불과해 2차 선정에는 지역 광역브랜드 경영체들의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1차 사업단 선정이 마무리 됐지만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존 1지역 1사업단의 원칙에서 과열 경쟁문제 등으로 한발 물러나 복수 인증지역이 발생했다. 이천, 홍성, 정읍, 대구는 2개 이상의 사업단이 운영된다. 이들 지역의 사업단이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정된 한우사업단은 다음과 같다.

기초 135개소 광역 3개소 인증 연내 140개소 목표 달성 무난 브랜드 경영체 대거 참여 예상

■ 기초 사업단

경기	가평무르연인, 광주지구축협, 김포시, 남양주시, 시흥, 양주, 양평군, 용인시, 이천축협, 평택시, 포천시, 임금남표(이천) <이상 12개>
강원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양양,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이상 16개>
충북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충북한우조합(청풍순한우), 충주시 <이상 10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축협,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당한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충남한우협동조합(서산), 하늘소, 홍성, 홍성한우브랜드 <이상 18개>
전북	고창군, 군산, 김제시, 남원시, 부안, 순정축협(정읍),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단풍미인, 지평선, 총체보리 <이상 13개>
전남	강진들황금, 고흥, 곡성, 광양, 구례군, 나주, 담양,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정남진장흥, 청해진녹색, 함평군, 해남군, 화순자연애 <이상 20개>
경북	경산시, 경주천년,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우리진키토산, 울릉군, 의성군, 청도, 칠곡군, 포항시 <이상 21개>
경남	거제, 거창군, 고성, 김해,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미량초우, 사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솔잎한우, 함안군, 함양, 합천군 <이상 19개>
제주	제주 <이상 1개>
대전	대전광역시 <이상 1개>
광주	광주광역시 <이상 1개>
대구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달성군, 팔공상강 <이상 3개>

■ 광역 사업단

전북	참예우 <이상 1개>
전남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이상 2개>

송아지생산안정제 · 품질장려금 개편...현장과 괴리

“한우산업 안정기반 위한 근본적 대안 제시를”

송아지생산안정제 축소와 품질고급화장려금 폐지 논란으로 한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우협회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만큼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임을 강조하면서 협회의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품질고급화장려금 또한 올 초 FTA대책으로 시행됐지만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농가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논란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재돈 국민농업포럼대표)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업선진화 추진방향과 주요과제에 따르면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성과를 평가해 폐지, 축소, 확대를 통해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개별시설보조는 공동이용시설보조로 전환하며, R&D, 교육 및 컨설팅 보조를 확대해 농가들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품질고급화장려금은 2010년 폐지된다. 이유는 단순 보상보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

안정제, 한우산업 최소한 안전장치로 남아야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최소 생산비를 보장해 한우산업이 안정적인 밑소 생산기반을 유지하자는 취지인 만큼 그 가치를 성과나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는 매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폭락 시에만 발동이 된다. 위원회에서 말하는 성과나 효율성처럼 투입된 사업비 대비 효과가 아닌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근본적인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 운영된다면 결국 축소 또는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안정제는 발동 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대규모 가축질병이나 가격폭락, 홍수출하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장려금, 품질고급화위해 필요하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폐지 문제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지난해 미산 쇠고기 수입과 FTA대책으로 마련된 소·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이 시행 1년도 안되어서 폐지 방침이 알려진 것에 농가들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내 축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해 FTA에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6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사실이 농가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당시 촛불사태로 뜨겁게 달궈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농가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통해 농가들이 큰 수익을 얻는 것 보다는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유도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무조건 보조는 안된다는 시각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품질고급화장려금의 단순폐지로 보기 보다는 질병근절 및 생산성 제고 사업 등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올해 당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139억원이지만 내년부터 번식농가지원이나 질병청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6백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여론이 반영되지 못한 정책은 성공가능성이 낮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통합운영과 품질고급화장려금 폐지가 결국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길이라면, 우선은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설득에 나서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소비자 신뢰 기반 한우고기 가치 제고... 지속적 홍보·교육 필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현장을 가다

안전한 쇠고기 유통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축산물 이력제가 전면 시행된 지 8월 22일로 두 달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사육단계, 올해 6월 22일은 유통단계 시행으로 바야흐로 쇠고기이력제가 ‘소비자안심제도’로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정부, 생산단체,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 대형할인마트, 도축장 등 각 단계에서 5년여간의 시범가동을 거쳐 이제는 사육, 도축, 유통, 판매, 소비단계가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 하고 이동사항을 모두 기록·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새롭게 바뀐 유통현장을 둘러보고 쇠고기이력제 정착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담았다.

판매단계

영세식육점 이해도 부족...“계도기간 연장해야”

“한우인지 어떻게 믿죠?”

“포장 겉면에 붙은 라벨지에 번호 보이시죠. 소 주민등록번호예요. 확인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12자리. 이게 바로 개체식별번호이군요. 숫자가 많아요”

15년차 주부인 최동화 씨는 저녁 찬거리 마련을 위해 미아동 재래시장을 찾았다. 정육점에서 한우 포장육을

들고 나서 미심쩍은 듯 한우를 확인하고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컴퓨터 앞에서 한우라는 것을 확인한 후 믿고 구매했다.

이력제 확인을 위해 중소규모업체들은 컴퓨터를 설치하고 소분할 포장육마다 라벨지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다.

유통단계 전면시행으로 식육표시판, 별도의 라벨프린트기 마련 등 제반시설에 투자를 해 여전히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현장에서는 쇠고기이력제를 위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한우인지 확인하는 동안 신뢰가 형성되어 식육판매업소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식육판매업소는 축산물이 소비자들과 제일 먼저 만나는 접점이다. 식육표시판에서 한우인지, 등급은 어떤지, 심지어 도축장까지 확인하는 모습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다.

우선 터치스크린 등 단말기가 설치된 매장에서는 번호만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 휴대폰에서 6626과 인터넷 접속키를 누르고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종류와 성별, 원산지, 도축일자에서 품질등급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세식육점을 운영하는 안수찬 씨는 “이력제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부족한데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잡육처리를 한곳에 하는 등 예전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다”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만큼 제도기간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축·가공단계

개체별 관리에 작업시간 늘어...“보완책 시급”

아무래도 가장 일이 많아진 곳은 도축장, 육가공장이다.

출하된 소가 도축장으로 오면 도축장 접수창구에서 증명서의 개체식별번호와 소 귀표를 확인하고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이력추적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작업시간이 두 배로 늘었죠. 운송업자가 접수 후 바로 위생검사관들이 계류장 소들의 귀표와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확인한다”며 도축장 관계자들은 “작업환경이 변화되어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력충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를 도축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도록 해당도체를 확

인하는 것은 필수다.

육가공 공장의 움직임도 여전히 분주하다.

부위별로 발골·정형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개체번호별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대 하나에는 한마리만 오른다. 개체별 오염과 혼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생산단계

농가 귀표관리 중요성 인식...“위탁기관 지원 절실”

쇠고기이력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사육농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생,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필히 신고해야 한다. 귀표부착 및 신고는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약속이다.

최근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어 한우 가격도 제 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생산단계에서 전 산업력관리가 어려운 만큼 대행기관인 축협, 한우협회 등 위탁기관으로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한우농가 당부말씀

좋은 때일수록 어려운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우두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우농가의 부담이 됩니다

● 품질우선의 정도경영에 매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 한우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지에서는 비육이 덜 된 소를 조기 출하하는 등 품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소비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 한우두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우리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 한우산업은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의 몫이 아닌 우리 한우인들의 몫입니다.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성

숙된 자세가 요구될 때입니다.

●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비 절감과 사료의 해외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찾는 것이 곡물파동에 한우산업이 함께 몰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호황이 깊을수록 불황에 대비합니다

— 여유가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한우산업의 위기에 맞서 나갑시다.



한우자조금 ‘쇠고기 이력제’ 등 홍보활동 강화 소비홍보·교육 확대에 예비비 9억2,250만원 투입

지난 7월 23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의결했다. 2009년도 한우자조금 예비비 사용안에 따르면 효과적인 소비홍보를 위해 기업체 연계 소비촉진행사와 한우농가 교육, 농가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그중 신규사업으로는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 홍보와 한우농가 우수경영사례집 발간사업, 한우퍼레이드 사업에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관리위원들은 9억 2천250만원의 예비비를 전용하기로 의결했다.

□ 예비비 사용(안)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예산 (A)	조정예산 (B)	증감 (B-A)	비고
기업체연계 소비촉진행사	200,000	300,000	100,000	기업체 연계행사 확대 추진
한우농가 위생안전생산교육	17,000	50,000	33,000	한우농가 교육수요 증가
한우농가 대상홍보및계도	135,375	216,875	81,500	한우농가 자조금사업 홍보 확대
쇠고기이력제홍보 (신규 사업)	-	550,000	550,000	생산이력제 조기정착 유도
한우농가 우수경영사례집발간 (신규 사업)	-	58,000	58,000	'08에 이어 생산 및 유통부문 농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한우퍼레이드 (신규 사업)	-	100,000	100,000	2009 소의 해를 맞아 한우 민족문화 이벤트 홍보
예비비	2,230,858	1,308,358	△922,500	

충북 대의원 간담회 _ 7월 3일



색하고 앞으로 대의원간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지역 한우 자조금 대의원은 7월 3일 음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내 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앞으로 대의원간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 대의원 간담회 _ 7월 30일



유통감시단, 소비홍보, 교육사업 등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해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 포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의원들은 자조금 거출에 협회 시군지부장 및 대의원들이 앞장서기로 하고 앞으로

“한우도 먹고 피서도 즐기세요” ‘제1회 강원도 한우사랑 대축제’ 성료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는 7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강릉 경포 해변 일원에서 ‘제1회 강원도 한우사랑 대축제’를 개최했다.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이틀 동안 약 5000명의 한우 불고기 무료 시식회를 열어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알렸다. 또 소달구지 체험을 비롯해 한우 불고기 빨리 먹기 대회,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돼 한우와 함께 피서지 행사로서 큰 인기를 끌었다.

행사장에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횡성 한우 · 늘푸름 한우 · 대관령한우 ·

하이룩한우 · 한우령한우 · 치악산 한우 등 강원도 대표 브랜드 한우가



총출동해 대규모 홍보전을 펼쳤다.

함평 한우특구 한우 맛 보세요! 광주전남지역 한우 소비활성화 행사



위원장,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이석형 함평군수, 정영기 전국한우협회 함평지부장 등 내빈과 3000여명의 소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이낙연 위원장은 축하인사에서 “한우산업이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호경 회장은 “한우특구가 전국적으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한다”면서 “농가들이 단합하는 길이 한우산업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함평군에서 지난 8월 1일 한우자조금사업 중 도별 소비활성화 행사의 일환으로 함평군 한우특구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한우소비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우특구지정에 힘을 기울였던 농림수산위원회 이낙연

부대행사로는 한우 시식회 및 2500명 대상의 한우고기 나눔행사, 친환경 장어잡이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여름 휴가철 돌머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의 호응을 받았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집중 홍보 생산·유통단계 홍보물 제작



7월 23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예비비 사용안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를 위한 식육표지판, 전단지, 포스터, 식육거래 내역서 등 생산·유통단계에서 필요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우 창작동화 공모전’에 214개 작품 접수 당선작 동화책으로 제작, 배포



한우자조금은 어린이들이 우리 한우에 대한 친근감을 더하고자 한우와 관련한 창작동화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한우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한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 하여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를 소재로 한 창작동화에 대한 공모

를 7월 31일까지 진행한 결과 214점의 동화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시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작에 대한 상금은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50만원 등이며 당선작은 동화 전문작가의 검수를 거쳐 추후 동화책으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민족문화 한우’ 알릴 아이디어 찾습니다

‘제3회 우리한우사랑 문화공모전’ 9월 21일까지 접수



한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민족문화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개최하는 ‘제3회 우리한우사랑 문화공모전’이 8월4일부터 공모를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전국한우협회는 문화공모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대학에 포스터 배포, 한우공모전 홈페이지 개설, 라디오광고, 지하철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TV 자막광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번 한우공모전은 8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응모기간 동안 한우사진, 한우광고(신문·잡지) 시안을 접수받아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 한우공모전 홈페이지 www.designhanwoo.co.kr

■ 시상내역

구분	한우광고 사진부분		광고 디자인 부분		비고
	시상자수	상금	시상자수	상금	
대상	500만원 및 상패 1명				한우협회장상
특별상	해외연수/일본 공공디자인연수 3박4일 또는 상금 200만원 및 상패				
황소상	1	200만원 및 상패	1	200만원 및 상패	
암소상	2	100만원 및 상패	2	100만원 및 상패	
송아지상	10	한우선물세트 및 상장	10	한우선물세트 및 상장	30만원 상당
인기상	2	한우선물세트 및 상장	2	한우선물세트 및 상장	온라인 참여 우수 추천상

통화 연결음 ‘한우먹고 힘내요’ 신청하세요!

한우자조금은 2009년 라디오 광고에 사용중인 음원인 ‘한우 먹고 힘내요’를 신규 통화 연결음으로 제공하고 있다. 통화연결음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ttp://www.hanwooboard.or.kr>) 왼쪽 하단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야구선수들, 한우 기운 받고 힘내세요”

기아타이거즈, LG트윈스 우승기원 ‘한우데이’ 개최



수를 ‘한우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또 김남배 전남도지회장 시구, 한우불고기 무료 시식회, 한우경품 제공, 지역농가 무료초청, 기아타이거즈 단체응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 8월 9일에는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 경기에서 ‘LG트윈스 우승기원 으랏차차 한우데이’가 열렸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봉중근 선수를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경기를 알리는 시구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번 한우데이 행사도 야구장을 찾은 관중을 대상으로 전광판 광고 등을 활용해 한우를 알렸다. 또한 잠실야구장 내에 한우불고기 시식회 코너를 마련해 경기가 끝날때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우 불고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우를 홍보했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8월 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기아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 경기 현장에서 ‘기아타이거즈 우승기원, 명가재건 한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이벤트는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고,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이날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지역 한우 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아타이거즈 이중범 선

한우관련 행사일정

○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한우인의 날 | 9월 15일~16일
- 전북 익산시

○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 9월 9일~12일
- 대전광역시 KOTREX, DCC

○ 2009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 9월 17일~19일
- 고양시 일산 KINTEX

○ 제2회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한우 Day) |
10월 31일~11월 1일
- 서울 등 전국 10개 도시 행사장

SBS 드라마 '스타일' 방송협찬

한우 식감 자극해 한우 소비촉진 유도

드라마 PPL 사업에 SBS 주말드라마 '스타일' (토·일, 오후 9시 55분~11시)에 방송제작 협찬을 신규로 진행한다.

'스타일'은 화려하고 치열한 패션 매거진에서 고군분투하며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네 남녀의 일, 사랑, 열정을 리얼하고 감각적으로 다룬 드라마로 한우의 식감과 미감을 자극하는 장면을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KBS 드라마 '결혼못하는 남자'



7월 27일 (월) 13부

재희씨가 한우 고기 세트를 전달하려는 장면, 고기 세트를 전달받은 재희가 주방에서 혼자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는 장면



7월 28일 (화) 14부

식구들과 식사 중 한우 육회 노출



8월 3일 (월) 15부

두 번째 고기집 데이트 중 재희가 고기 고르는 방법, 가장 알맞게 굽고 적절한 타이밍에 먹어야 한다는 한우 매니아 다운 고기 시식법을 문정에게 설명



8월 4일 (월) 16부

재희의 집에 방문한 문정에게 '샤또 블로우'라는 한우 레시피를 직접 요리해주는 장면

“한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홈페이지 새단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anwooboard.or.kr/>)가 새 단장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한우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한우농가 및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맞춤 서비스와 한우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소비자 대상 한우정보사이트 '한우114' (www.hanwoo114.co.kr)도 개편을 통해 한우전문판매점과 한우전문음식점 코너를 신설하여 지역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통업소 쇠고기이력제 ‘개체식별번호’ 표시 미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초기 대비 큰 개선

2009년 상반기 유통투명화 감시단 지역별 활동내용에 따르면 정육점 등 6,778개 유통업소를 방문한 결과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개체번호 미표시 업소가 9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급미표시도 87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등급판정서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가 681곳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

는 식당 등 14,323개점을 방문한 결과 원산지표시에 532건, 축종표시에서 708건(중복집계포함)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 상반기에는 9917개 업소를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5915건, 축종표시위반 4429건에서 2008년 하반기에는 총 12,97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1592건, 축종표시 위반 1088건을 적발했는데, 시행초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 수입산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곳이 4374곳,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를 보관하지 않은 곳도 3950곳, 3826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우유통투명화 감시단은 앞으로 정육점 등 유통업소 감시활동을 통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적극 홍보해나가기로 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더 노력할 계획이다.

□ 한우 유통투명화 정보제공 지역별 활동내역(2009년 1월~6월)

활동내용		도지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총계
감시원활동(명)		0	1	2	1	1	1	1	2	3	3	14
부감시원활동(명)		23	12	6	3	6	4	6	6	9	10	79
현장활동일수		689	408	220	126	222	161	249	249	350	295	2,720
1일 평균 활동업소수		8.0	7.9	5.5	8.9	9.5	7.8	7.4	6.2	6.2	9.1	7.8
합동단속일수		51	63	28	12	36	18	5	15	15	1	229
정육점 등 유통업소	활동업소수	648	613	624	601	1,013	327	751	1,251	950	950	6,778
	등판서 미비치	32	24	109	9	71	19	244	120	53	53	681
	원산지 미표시	9	11	7	8	7	5	33	48	13	13	141
	축종 미표시	16	19	4	11	24	8	57	44	29	29	212
	부위명 미표시	17	11	8	13	15	25	47	63	11	11	210
	등급 미표시	30	39	27	107	70	52	190	299	60	60	874
	용도 미표시	32	14	28	39	29	25	59	126	23	23	375
	개체번호미표시	0	0	60	40	0	80	202	256	272	272	910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활동업소수		4,876	2,594	587	517	1,089	928	1,096	914	1,722	14,323
	원산지 표시	일부 미표시	96	69	6	0	7	11	9	32	89	319
		전부 미표시	61	15	1	0	9	3	23	9	54	175
		허위표시	2	1	6	0	3	0	0	1	25	38
	축종 표시	일부 미표시	105	70	1	0	10	8	51	61	55	361
		전부 미표시	80	68	13	0	22	0	67	8	83	341
		허위표시	2	1	0	0	0	0	0	0	3	6
	거래명세표 미보관		655	250	26	20	65	84	77	78	323	1,578
	등급판정서 미보관		1,053	502	81	64	225	426	661	257	557	3,826
	도축증명서 미보관		1,104	521	77	68	236	426	662	318	538	3,950
	수입산증빙자료 미보관		2,065	1,214	195	4	331	79	32	211	243	4,374

현장실습교육

이천시 | 한창목장/7월 10일



사천시 | 매실한우농장/7월 10일



인제군 | 청일농장/7월 21일



전북도지회 | 단풍미인한우/7월 30일



한우농장 경영관리 교육

충북 | 충주농업기술센터/7월 28일



전북 | 1차 정읍 청소년수련관/
8월 3일



전북 | 2차 정읍 청소년수련관/
8월 4일



전북 | 3차 남원 농업기술센터/8월 5일



경북 | 농업인회관/8월 13일



한우생산성 향상 전문기술교육

의령군 | 의령군농업기술센터/7월 10일
(130명 참석)고성군 | 고성군농업기술센터/7월 17일
(290명 참석)

이천 | 이천시청 대강당/8월 12일



장성 | 농업기술센터/8월 13일



후계자 간담회

전북 | 도지회사무실/8월 6일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회의실에서 열린 후계자 간담회에는 19명의 한우 후계자가 모여 전북 한우산업의 미래를 젊은 리더들이 이끌자고 다짐했다.

또 한우 후계자들은 한우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자존심이며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각 지역의 사양관리와 한우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자고 의견을 모았다.



시군지역 소비홍보

포항 | 불빛축제/7월25일~26일



울진 | 친환경 EXPO/ 7월 24일~8월 16일



광주 |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 소비홍보 행사/8월 6일



청소년 행사지원

“한우 먹고 힘내서 국토대장정 완주하세요!” 한국농업대 ‘농촌사랑 국토대장정’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국 농업대학교가 진행하는 '2009 농촌사랑 국토대장정'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업대학교 재학생 50여명이 전국 농촌지역을 누비며 우리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아울러 국민들에게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국토를 완주하는 행사이다.

농업대 학생들은 7월 31일 전남 해남에서 출발하여 영암, 나주, 장성을 거쳐 전북 정읍, 김제, 군산을 이어 충남 서천, 보령, 홍성, 아산, 경기도 평택, 수원, 안양을 지나 서울 국회 앞을 최종 지점으로 총 445km에 이르는 구간을 종단했다.

협회는 학생들이 국토대장정 기간동안 사용할 티셔츠와 수건을 제작, 지원하고, 8월 5일 정읍, 8월 10일 홍성 등 2곳에서 협회 도지회 및 지부가 국토대장정 완주를 기원하는 뜻으로 한우고기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한우자조금 애독자 코너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족문화로 자리매김하고자 8월4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우와 관련된 사진, 광고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이 공모전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8면을 참조하시고 한우자조금 및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 www.ihanwoo.org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www.hanwooboard.or.kr

★ 7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석재한(경남 합천군), 이성진(충남 논산시), 심영미(전남 보성군)
김애경(경북 영덕군), 안홍식(충남 홍성군)



전국 한우像 순례⑤



2009년 기축년 "소의 해"를 맞이하여 첫날이 시작되는 1월 1일, 세계 최대규모(길이 10m, 높이 6.5m, 폭 4m)의 부사리(황소의 전라도 방언) 조형물을 나비의 고장 함평 엑스포공원 북문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였다. 이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함평천지 한우를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황소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이 지역의 기상과 미래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한우와 음식궁합 ①

한우고기 + 버터 = Bad

한우와 버터는 모두 콜레스테롤이 높은 재료, 따라서 함께 조리하면 과다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어 건강에 해롭다. 스테이크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음식 매치로 고기의 향과 맛은 좋게 만들지만 순환기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올리브유를 사용하길 권한다. 또 등심과 같은 마블링이 잘된 부위를 로스구이로 먹을 때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 좋다.



“한우를 민족산업으로 뿌리내려 가겠습니다.”

- 한우는 우리 민족 정서에 배어있는 민족문화 유산입니다.
- 단순한 고기산업에서 한민족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국가·지방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로 뿌리 내리겠습니다.
-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소비자)들이 키워가는 산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한우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한우를 사랑하는
4800만의 마음이
우리 한우를 키웁니다.
대한민국을 키웁니다.